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고창군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앞당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제 조·관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또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인지검사 지원

정읍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원하거나 받아야 하는 고령 운전자는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교통안전 교육 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갯벌서 마음껏 즐겼다”

2022 고창갯벌축제, 사흘간 10만여명 찾아 성황리 마무리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갯벌에서 마음껏 뛰어놀다 출출해지면 해물라면 한 그릇 푹딱 해치우는 2022 고창갯벌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7일 삼일면 만돌갯벌체험장 일원에서 열린 2022고창갯벌축제가 행사기간 총 10만여명이 찾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19와 폭염 등 악조건 속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몰리면서 온가족 체험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평가다.

올해 축제는 갯벌에서 동족을 깨는 갯벌체험,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인 풍



천장이 시식 및 판매, 남녀노소 모두 맨손으로 즐기는 미꾸라지 풍천장어잡기,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바다보석 만들기, 현미경으로 연생 식물 관찰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즐겼다.

특히 미꾸라지 풍천장어잡기는 축제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동족해물라면', '바지락전'

등 새롭게 선보인 요리들은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장 곳곳에는 차광막과 간이태이블 등이 설치 돼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한여름의 여유를 만끽하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고창 갯벌은 필 갯벌과 모래 갯벌 등이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지난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고창갯벌축제는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 마당이다”며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서해안 수산물 대표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의 창의적 생각이 정책”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시민참여 독려 등 현안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이하 시민 정책 제안)'과 관련해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관심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8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시민 정책 제안과 관련, 특별주제인



“정읍역” 정읍천 연계 화플래이스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읍역과 정읍천 구간 내 유휴지를 활용한 문화장작 공간 조성과 생고을 시장과 천변 주차장 지하 연결통로 개설, 천변 카페거리 활성화 계획 등과 관련한 시민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평소 “시민 스스로가 시의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들 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추진할 때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함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소통시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민 생활 주변의 개선하거나 시행해야 할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과 폭염 대응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현안업무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직원들의 휴가도 독려했다.

이 시장은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통해 창의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급자들이 상급자 눈치를 보느라 휴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마 가고 폭염, 시설채소 “이렇게 관리하세요”

정읍농기센터, 여름철 농작물·건강 관리 '주의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해 시설채소 재배관리와 농작업 안전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강한 햇빛으로 뿌리의 기능이 약화되어 식물체는 시들음 현상이 발생하고 시설 내 환기가 안 되면 고온 장애 발생과 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강한 햇빛에 의해 데임 열매가 발생하고 열매가 잘 달리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특히 하우스 안이 30°C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하여 고온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주요 시설채소 관리 요령으로 토마토는 병에 걸린 식물체는 빨리 뽑아내어 전염원을 줄여주고, 질소비료를 알맞게 주어 줄기가 굵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박은 기형과는 빨리 따주어 다음 열매가 잘 달리도록 유도하고, 터짐을 예방하기 위해 알맞은 토양수분을 유지해야 하며, 햇빛 데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문지 또는 짚 등으로 열매를 덮어주는 것이 좋다.

꽃고추는 시설 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고 식물체를 흔들어 주어 열매 달림을 좋게 해주면 좋다. 여름철 농업인의 열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자주 휴식을 취하고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과 염분(물 11에 소금 1/2 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해야 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12~17시 사이에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작물에 맞는 적절한 농작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여름철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서해안 갯벌 자연유산 등재... 고창군이 중심”

심덕섭 고창군수가 8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서해안 갯벌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이 확대될 예정이다”며 “그 한 중심에 고창이 있고 갯벌보전본부가 고창으로 유치돼 이를 종합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군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제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고창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했다.

특히 이와 동시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지역, 충남 태안 가로림만

등이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심 군수는 “고창군은 서해안을 따라 잘 발달한 ‘한국 갯벌’의 최종심지역이며 ‘히미 확보된 대규모 부지에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보전·관리 컨트론타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심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군 산하기관(베리언바이오토탄연구소, 고창군문화관광재단 등)의 철저한 조 직운영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약 통해 대도약 비전 실현”

권익현 부안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 점검 성실 이행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다.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각각의 공약별로 소용예산, 추진기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선8기 핵심 비전인 친환경 에너지 산업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조성, 부안형 푸드플랜과 관련된 공약들은 더욱 세밀하게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렸다.

이 보고회에서 검토 대상인 민선8기 공약은 최종 88개 사업으로 금후에도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2년 주요투자사업 188건에 대해서도 추진상



황을 점검하였는데, 권익현 군수는 시기적절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적극적인 주민협의를 통해 사업의 속도감과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력해 준 덕분에 2021년과 2022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은 부안군이 미래 대도약을 위한 실천계획인 만큼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하여 미래1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